

# 산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홍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http://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6 권 21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 30 분(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평일미사: 월, 화, 목요일에는 오후 6 시. 금요일에는 오전 9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평일미사 전 (오후 5:30 - 5:50) 또는 시간약속을 요함.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 매월 둘째 일요일 오후 7 시, 평협회장: 박영우 니콜라스 (661-703-5957)

성당사무실 시간: 월, 수, 금요일 (오전 9 시-오후 8 시). 화 (오전 9 시-오후 6 시), 목요일(오후 2 - 6 시).

미 사 성 가	입 당 ()	봉 헌 ()	성 체 ()	파 견 ()
<p><b>성모성월 성모의 노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느님께 내 마음 기뻐 뛰노나니 당신 중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다.</li> <li>● 이제로부터 과연 만세가 나를 복되다 일컬으리니 능하신 분이 큰일을 내게 하셨음이고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로다.</li> <li>○ 그 인자하심은 세세대대로, 당신을 두리는 이들에게 미치시리다.</li> <li>● 당신 팔의 큰힘을 펼쳐 보이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홀으셨도다.</li> <li>○ 권세있는 자를 자리에서 내치시고, 미천한 이를 끌어올리셨도다.</li> <li>● 주리는 이를 은혜로 채워주시고, 부요한 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도다.</li> <li>○ 자비하심을 아니 잊으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으니</li> <li>● 이미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위하여, 영원히 우리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바로다.</li> <li>○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li> <li>●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li> </ul> <p>✦ 기도합시다.</p> <p>저희를 하느님 아버지께 이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를, 저희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전구자로 세우셨나이다.                  비오니, 성모 마리아의 전구를 들으시어                  저희가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p> <p>◎ 아멘.</p>			<p><b>성소를 위한 기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나이다.</li> <li>●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li> <li>○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li> <li>●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li> <li>○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덕으로 나아가게 하소서.</li> <li>●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li> <li>◎ 아멘.</li> </ul>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5/29	박 니콜라스	이 바오로	허 벤자민, 박 다니엘
6/5	이 그레이스	김 유스티나	허 벤자민, 박 다니엘
6/12	유 요한	김 헬레나	허 벤자민, 박 다니엘
6/19	이 마틸다	이 바오로	허 벤자민, 박 다니엘
6/26	박 니콜라스	김 유스티나	성인복사

\*'제 1 독서' (한글)/ '제 2 독서' (영어).

미사 봉헌금 및 교무금

주일미사	봉헌금	2 차 봉헌	교무금
5/22	\$275.00	-	\$360.00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한 기도' 를 부탁드립니다.

공동체나 이웃에서 병환이나 기타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모든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이삭

나의 약속

김 현 요셉 | 前 시그니스 회장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필연적으로 죽음을 맞습니다. 결국은 주님께 돌아가야 할 유한한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게는 좌우명처럼 받드는 몇 가지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쁘게 살자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내게 무슨 좋은 일이 있어 항상 웃는 낯이나고 묻습니다. 나는 꼭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쁜 낯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쁘게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결국 좋은 일도 생기고, 슬픔에 잠겨 있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려고 노력하는 것 역시 기쁜 일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둘째는 열심히 칭찬하면서 살자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도무지 칭찬받을 일이라곤 없는 사람이 많지만 나는 그런 사람일수록 칭찬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바른길로 가지 못했을지도 모른다고 짐작합니다. 칭찬해주는 역할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가정과 사회를 밝게 하고 나 자신이 평화로울 수 있는 길일 것입니다.

셋째는 옳은 일은 열심히, 그것도 밀어붙이며 살자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보시기에 '밀어붙인다'는 표현이 거슬릴지 모르지만, 좋은 의미에서 밀어붙인다는 것은 활력을 가질 수 있고 효과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부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팔순을 눈앞에 두고 보니 '무소유'라는 말이 맴돕니다. 그리고 자꾸 부모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두 분이 같은 해에 돌아가셨을 때 나는 그야말로 별판에 홀로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두 분은 나와 아내를 많이 위해주셨고, 부부가 여행을 떠나는 데도 아무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시곤 했기 때문에 더욱 그립고 가슴이 아픈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를 준비하는 것은 진정으로 죽음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싶기 때문입니다. 80세를 가까이 살아오면서 크나큰 불행이 없었던 것도 하느님의 보살핌이 있었던 덕분입니다. 70세 이후의 삶을 허락하는 것 역시 하느님께서 '이제부터는 욕심부리지 말고 봉사하면서 살라' 는 뜻일

공동체 소식

성체조배: 6/2 (목) 오후 6시 30분

6월 성체조배는 첫째 목요일인, 6월 2일(목) '저녁 6시 미사' 후에 있습니다.

봄 하마йка 축제: 6/5 (주일)

산클레멘테 본당 모든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하마йка 축제가 오는 6월 5일 (주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또한 행사를 위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물, 음료수, 스펀, 접시 등을 후원하실 분들은 사무실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행사 당일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평협 임원회의: 6/12 (일) 오후 7시

6월 한인공동체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는, 둘째 주일인 6월 12일(주일) 저녁 7시에 있습니다.

소공동체 모임: 6/19 (일) 오전 8시 주일미사 후

6월 소공동체 구역모임은 셋째주일인, 6월 19일 오전 주일미사 후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것입니다. 저는 그 뜻을 조용히 따르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눈을 감았을 때 하느님 앞에 가 "부르셨습니까? 저, 여기 대령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것입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나는 앞으로도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주신 분들을 비롯 해 가족, 친구들에게 남기고 싶은 약속이 바로 이것입니다.

<서울주보에서>

보속은 꼭 해야하나요?

보속(補贖)은 '끼친 손해를 갚는 것'으로, 죄를 지어 받아야 할 하느님의 벌을 기워 갚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받기 전에 범한 죄는 세례성사의 은총으로 다 용서받지만, 세례 후에 범한 죄는 고해성사로서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죄는 용서받더라도 죄의 흔적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를 적절한 방법으로 보상하거나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이 갚음을 보속이라고 합니다.